

세 가지 중심 개념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 절대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일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고정불변의 절대진리를 부정하는 대신 다양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던 회의주의도 철학의 한 축을 담당한다. 회의주의는 단일한 진리를 부정한다는 면에서 상대주의와 비슷하지만, 더 극단적으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방법 자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고대 철학 -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 구체적으로 눈앞에 놓인 사물들,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연필, 침대처럼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철학자들은 '현상'이라고 부른다. 반면 이들의 본래 기원인 나무처럼 개별 존재자의 공통 속성은 '본질'이라고 부른다. 현상과 본질은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분법적 구도다.

• 자연철학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논했다. 이들은 논리적 사유만으로 본질에 대해서 논의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 이런 면에서 자연철학자들은 절대주의적인 측면을 갖는다.

대표적 자연철학자로는 탈레스('물'), 헤라클레이토스('불'), 데모크리토스('원자') 등이 있다.

• 자연철학자 이후 등장한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이었다. '소피스트'란 말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이 보기에 인간 삶의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또 굳이 수고스럽게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자연철학자들과 달리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정된 진리나 본질, 실체가 없다는 상대주의, 회의주의적인 견해를 견지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프로타고라스("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있다. 진리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잘 드러낸다.

• 소피스트들은 교육자이기도 했다. 변론술이나 수사학을 가르쳤다. 당시 그리스는 민주주의 사회로, 재판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판결이 결정되는 일종의 배심원 제도였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부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소크라테스다. 그는 사람들과의 문답법을 통해 누구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산파법'이라고 불렀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초주의' 혹은 '토대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절대주의로 어휘를 통일해서 사용하자.

• 절대주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에게 이어졌다. 플라톤은 절대주의적 사고를 극대화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진리의 세계로서의 '이데아'를 제시했다.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던 세계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가 현실 세계가 된다.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현상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며, 본질로서의 이데아 세계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명색이 철학자라면 불안정한 물질 세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상기’, ‘변증’, ‘사랑’을 생각하였다. 플라톤은 본질적이고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절대주의 철학의 시조가 되었다. 서구 철학 전통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절대주의는 모두 변형된 형태의 이데아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서양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한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 플라톤의 철학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에게 완전하고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림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완전한 세계를 상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의 가치를 저하하고 일상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 플라톤이 절대적인 하늘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땅 위의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플라톤의 거대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어서, 보편적인 지식이나 초월적인 관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현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을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에서 기원한다. 형이상학은 현상 이면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현실 학문의 근원 개념들에 대한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이 형이상학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현실의 존재였다. 그는 실체가 없는 이데아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질료’(‘가능태’)와 ‘형상’(‘현실태’)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은 물질적인 질료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이 물질적 기반이 필요없는 이데아에서부터 세계를 이해했던 관점과의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료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료의 세계인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맨 아래에 있는 최초의 질료로서,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질료를 ‘제일질료’라고 이름 붙였다. 제일질료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사고 속에서만 존재하는 순수한 재료다. 반대로 맨 위에 있는 궁극의 최고 형상으로서, 어떠한 질료도 지니지 않은 ㅎ여상을 ‘순수형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최고 형상은 신이 된다. 신은 질료가 없으므로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물질의 최종적인 형상으로서 모든 질료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이 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현실의 물질을 중요시했으며, 물질 세계의 변화와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질료와 형상의 설명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의 ‘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질료가 형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자연과학과 경험주의 철학의 기원이 되며, 플라톤과 함께 서구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위치한다.

- 중세 철학 -

교부철학, 스콜라철학

- 초기 그리스도교는 계시적이고 신비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러한 주관적인 특성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다른 문화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론 정립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이성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고, 그들이 만든 이념

을 ‘교부철학’이라 한다. 교부들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 차용한 이념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었다. 특히 당시 널리 연구된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이 컸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사상의 기반 위에 이를 더 세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데아 세계의 궁극적 근원은 일자(一者)에 가서 닿는다. 일자로부터 세계가 분화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원시적인 그리스도교가 스스로의 사상적 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오리게네스,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록’)등이 4~5세기에 활동한 교부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세계는 신의 이데아 따라서 그의 의지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지상 세계에서 원죄를 짊어진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적 존재인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이미 신이 예정한 것이며, 교회는 신과 예정된 대상이 매개되는 공간이다.

- 스콜라철학은 교부철학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교 철학의 흐름이다. 9세기부터 중세가 무너지는 17세기 무렵까지를 스콜라철학의 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부철학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했다면 스콜라철학은 이를 증명하고 세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교부철학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했던 까닭에 교부철학과 충돌하면서 성장했다. 스콜라철학은 초기를 거쳐 중기에 이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흐름을 도입했다. 즉 플라톤의 이데아적 절대주의 대신 그동안 기독교 철학 내에서 배제되었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분석에 차츰 관심을 가진 것이다.

- 이 당시 기욤(‘실재론’)과 로스켈리누스(‘유명론’)의 ‘보편논쟁’은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 안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충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벨라르는 중세의 보편논쟁을 마무리 짓고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컴 같은 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철학자들을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 중세의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유럽에서 회의주의가 등장하기 어려웠다.

- 근대철학 -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니체

- 중세 신 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 중심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진리의 대상이 종교에서 이성으로 넘어온 것이다. 근대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논쟁으로 변형된다. 합리론도 실재론과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관찰되는 개체보다는 변하지 않는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성을 중요시했다. 실재론과 합리론은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딘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닮았다.

경험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를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궁극적 원인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 운동하는 개체들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중세의 유명론과 닮았다.

• $\left\{ \begin{array}{l} \text{존재론: ()가 있는가?} \\ \text{인식론: ()를 어떻게 아는가?}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있다} \\ \text{없다}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이성: 합리론} \\ \text{경험: 경험론} \end{array} \right.$

- 고대와 중세의 철학이 존재론 중심의 철학이었다면 근대 철학에 와서야 인식론적 철학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현대 철학에 와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인다.

- 합리론 철학자:데카르트, 가상디,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 30년 전쟁으로 유럽은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신과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다.데카르트는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절대적 진리를 찾는 방법으로, 그는 반대로 모든 것을 의심해보기 시작하였다.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면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 진리가 발견된다면 그때부터 이 단단한 기반을 토대로 모든 학문 체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한다.
-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식을 감각지식, 일반지식,보편지식으로 나누어서 의심해보기 시작했다.
- 감각(시가, 미각,후각,청각,촉각)을 통한 지식은 믿을 수 없다.
- 일반지식은 자연과학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과학적 이론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정리된 지식이다. 그런데 귀납법은 논리적 비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관찰을 한다 해도 그 관찰은 언제나 과거의 관찰에 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귀납법은 과거의 관찰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런 까닭에 귀납법은 언제나 미래에 틀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지식인 일반지식은 불확실하고 의심 가능한 지식이다.
- 마지막으로 데카르트는 의심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수학과 기하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는 이런 지식을 자연과학의 일반지식과 구분해서 ‘보편지식’이라고 불렀다. 보편지식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달한 지식이다. 데카르트는 극단적으로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보편지식’도 의심하고자 했다. 데카르트가 이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은 어쨌거나 수학과 기하학이라는 보편지식이라 해도 절대 의심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을 의심할 수 없는 제1명제라고 불렀다.
- 데카르트는 위 명제를 통해 ‘나’를 증명했으니, 남은 것은 ‘세상’에 대한 증명이다. 우리는 사실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식물인간으로서 십 년째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진짜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데카르트는 세상을 증명하기 위해 신의 관념을 끌어들었다.
- 불완전한 내가(인간이) 신이라는 완전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외부의 절대적 존재가 나에게 신의 개념을 주입해주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존재로서 신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정리해보면 데카르트는 ‘나’를 증명했고, 내 관념 속에서 발견되는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외부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증명할 차례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은 개념상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개념안에 성실함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성실한 신은 나를 속이지 않고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이 있다면 ‘세계’는 존재해야만 한다.
- 데카르트의 사유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모든 세계의 증명을 시작한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나의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이고, 나의 존재 증명이 신과 세계의 증명보다 앞선다. 즉 인간의 이성이 우선이고, 신과 세계는 이로부터 파생되어 증명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아직도 ‘신’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는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만을 통해서 나와 신과 세계를 증명했다.즉 데카르트는 합리론적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
- 경험론은 자연 세계에서 감각적 경험만이 지식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변화하는 경험

세계를 토대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험론은 합리론에 비해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개별적인 개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세의 유명론과도 연결된다.

-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되고 증명된 것만을 믿는 경험론자들이 되었다.

- 경험론의 진리 탐구 방법에는 신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경험론은 중세의 신 중심주의를 끝내고 근대 이성중심주의와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경험론의 대표적 인물로는 16~17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그는 기전학문을 ‘우상론’으로 비판했고, 새로운 학문 방법으로 ‘귀납법’을 제시했다.

여기서 우상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의미한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이다.

- ‘종족의 우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편견을 말한다.

-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말한다.

- ‘시장의 우상’은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발생한다.

-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수긍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 베이컨은 네 가지 우상을 통해 기존 학문 체계를 비판한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학문 방법인 귀납법을 제시했다.

- 베이컨이 귀납법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 없이 쌓아 올려진 중세의 종교와 철학이었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 이르러 집대성된 신학과 철학은 강력한 권위와 신에 기초하고 있을 뿐, 검증 가능한 현실에서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베이컨은 누구나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특수한 개체로부터 경험적 자료를 쌓아 올린 새로운 학문 체계를 꿈꿨다. 베이컨의 경험주의는 과학이 발전하는데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 절대주의-실재론-합리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과 상대주의-유명론-경험론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을 종합한 것이 칸트이다. 칸트는 18세기에 활동했고 그의 업적은 ‘관념론’으로 알려져 있다.

- {내 외부의 관심 : 존재론 — 실재론
 • {내 내면 관심 : 인식론 — 관념론

- 본다는 것은 외부의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서 해석된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이다.

- 칸트는 세상을 둘로 구분했다.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를 ‘현상’이라고 부르고, 현상 너머의 진짜 세계를 ‘물자체’라고 불렀다. 칸트에 의하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상뿐이고 사물의 실제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머릿속 세상인 현상만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상 세계를 드러내는 사고의 구조 혹은 뇌의 형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드러나는 세계도 동일하다.

- 진리는 세계 밖의 ‘경험’에서 혹은 내 안의 주관적 ‘이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의 판단형식’에서 찾아야 한다.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이성은 주관적인 독단에 빠지기 쉬워서 위험하고,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경험은 물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사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고의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 칸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주체의 판단형식’을 ‘감성형식’과 ‘지성형식’으로 구분한다. 감성형식은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이 외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가진 형식적 구조라고 생각했다. 지성형식은 다음의 12개의 범주로 되어 있다.

- 양 : 단일, 다수, 전체
- 성질 : 실재, 부정, 제한
- 관계 : 실체/속성, 원인/결과, 상호작용
- 양상 : 가능/불가능, 현존/부재, 필연/우연

- 이후 칸트의 관념론은 헤겔(‘변증법’)에 이르러 극단적으로 완성되고, 헤겔의 철학은 마르크스로 이어진다.

- 니체는 근대의 서구 문화 전체를 전복하려고 했다. 니체가 진단한 서구 사회는 병들고 건강하지 못했다. 병의 원인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서구 이성중심주의 철학과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교 사상이었다.

-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는 선악의 구분 대신 좋음과 나쁨의 구분이 있었다. 좋은 것은 주인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나쁜 것은 노예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 주인의 도덕은 지배자 계급의 도덕으로 진취성과 확실성, 결단력, 창조력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도덕에 구속받지 않고 도덕을 스스로 창조해간다. 반면에 노예의 도덕은 나쁘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압되는 부자연스럽고 억눌린 도덕이다. 노예의 도덕은 겸손, 근면, 친절, 순종, 질서의 순응 등이 강조된다.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의 본질이 분노와 원한임을 밝혔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현실적으로 복수하지 못하는 억눌린 노예들의 원한이 그들의 본질인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노예의 도덕을 원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했으며, 건강하지 못한 도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원한의 도덕을 근본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 고대 이집트부터 로마 시기의 노예는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은 원한으로 시작되고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띤다. 주인에 대한 그들의 원한은 점차 왜곡되고 이상화되어 결국에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재탄생한다. 즉, 노예들은 자신들이 가진 도덕인 겸손, 근면, 순종, 순응 등을 ‘선’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뒤바꾼다. 그리고 주인의 진취성, 결단력, 창조력 등은 ‘악’이라는 개념으로 가치절하한다. 마음속으로 소심하게 복수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에 의해 ‘좋은’은 ‘악’이 되고, ‘나쁜’은 ‘선’이 되는 가치 전도의 상황이 발생한다.

-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에게서 발생한 그리스도교가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을 공고히 했다는 데 있다. 그리스도교는 유럽 사회 전체를 장악하면서 유럽인들에게 선과 악이라는 원한의 도덕관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다. 무엇인가 억눌리고 금욕적이며 겸손하고 희생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로 유럽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니체는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주인의 도덕은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도덕이지만, 노예의 도덕은 타인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병든 도덕이다.

- 병든 사회에 대한 니체의 처방은 그이 책<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에 제시된 초인사상과 영원회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 현대 철학 -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실존주의

• 하이데거는 20세기에 독일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철학자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언급했으나 그 이후에 다뤄지지 않은 '존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20세기에 다시 꺼내 들었다. 대표적인 저서는 <존재와 시간>으로 두께와 난해함은 거의 모든 철학서를 압도한다. 그가 다루는 주제는 매우 심오하고 중요하다.

• 하이데거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존재'가 고대 그리스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적 혼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어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존재'와 '존재자'가 구분된다.(예: '사과가 있다'라고 할 때, 사과는 존재자이고, 있다는 존재이다.)

존재란 숨겨져 있지 않고 그 상태 자체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 존재 = 드러나 있음 = 비은폐성 = 알레테이아 =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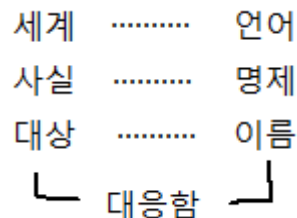
• 존재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의식의 장을 하이데거의 용어로 '존재', '비은폐성', '진리'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의식의 열린 장이 존재자를 존재자이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탐구하기 위해 현존재의 시간성을 탐구했다. 그리고 시간은 존재의 나타남 그 자체임을 밝혔다. 그래서 그의 저서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다.

•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해서 탐구했다.

•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만들어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철학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그는 언어를 정밀화하고 형식적, 논리적으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이론



• 그림이론이 도달하는 결론은 모든 철학적 문제가 세계와 대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 근대 이성주의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의 혼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동시에 냉전으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갈등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가 탄생했다.

• 실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선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나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하는 것이다.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 문제는 규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을 억압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가족, 도덕, 종교, 철학, 과학은 우리를 비노질로 규정하려고 한다.

• 어떠한 규정과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면, 나에게만 단지 세 가지만 남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존하는 존재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저주는 부정적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저항하는 이러한 실존주의 사상은 1968년 유럽 68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 전 세계로 퍼져, 탈근대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스트모던의 도래를 준비하게 한다.